독일 법원, 93세 남성에 집행유예 2년 유대인 학살 조력 혐의

▲ 슈투트호프 수용소 모습. 지금은 제2차세계대전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근무했던 93세 독일 남성이 유대인 등의 학살에 조력한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독일 함부르크 법원은 이날 나치 독일이 점령해 설치한 폴란드의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나치 친위대(SS) 소속으로 근무했던 브루노 D.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브루노 D.는 17~18세이던 1944년 8월부터 1945년 4월까지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복무했다. 슈투트호프 수용소는 1939년 9월 폴란드 항구도시인 그단스키 인근에 세워졌으며 나치가 독일 밖에 설치한 최초의 수용소다. 이곳에서는 유대인 2만8천 명을 포함해 6만3천~6만5천 명이 사망했다. 1944년에 가스실이 설치돼 집단학살에 사용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5천232명의 수감자들이 살해되는 과정에서 조력했다는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브루노 D.와 같은 경비원들이 가스실의 존재와 벌어지는 일들을 알고 있었고, 수감자들의 도피를 적극적으로 막았다고 주장했다.

브루노 D.는 법정에서 "미친 지옥을 겪은 모든 사람, 그들의 친척, 생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 고 말했다.

독일에선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나치 시대에 집단수용소에서 근무한 경비병들에 대해선 직접적인 가혹행위 증거가 나와야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지난 2011년 독일 법원 강제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근무했던 우크라이나 출신인 존 뎀야누크(당시 91세)를 상대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살인 조력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경비병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없다.

푸틴 "중··러 관계 전례 없는 협력의 모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전례 없이 좋은 때라며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자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뉴시스' 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전날 집권 통합러시아당과 중국 공산당 간 대화 행사에 축전을 보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오늘날 세계에서 국가 간 협력의 모범으로 여겨진다." 며 "역내·세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러시아와 중국의 조율 노력은 국제 안보와 평화 보장에 기여한다." 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주요 정당들의 대화는 러시아와 중국 관계의 중요한 요소" 라며 "통합러시아당과 중국 공산당은 입법 활동과 당 건설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며 여러 영역에서 상호 유익한 협력 프로젝트를 함께 한다." 고 말했다.

러시아는 코로나19 사태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등 최근 중국과 미국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에서 확실하게 중국 편을 들었다. 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서면서 다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함께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푸틴 대통령은 올7월 초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연임 제한에 관한 헌법을 수정했다. 이로써 최대 2036년까지 집권할 길을 열었다. 그는 2000년부터 대통령, 총리직을 역임하면서 절대권력을 누려 왔다.

시 주석은 2018년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해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했다.

"멕시코 아동, 빈곤·폭력에 시달려"

▲ 멕시코 아동 두 명 가운에 한 명은 가난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shutterstock

멕시코 어린이들의 절반은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상당수가 가정과 학교에서 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2일 '연합뉴스' 가 멕시코 유니세프의 2019년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멕시코 어린이와 청소년 3천800만 명 가운데 49.6%는 빈곤층이었다.

멕시코 국립사회개발정책 평가위원회(CONEVAL)에 따르면 멕시코 전체의 빈곤율은 41.9%이다.

멕시코 유니세프의 크리스티안 스쿠그는 "빈곤은 아이들을 소외되고 상처받기 쉽게 만든다." 며 코로나19 사태으로 아동 빈곤율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비율도 높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1~14세 아동 중 63%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 체벌을 비롯한 어떤 형태의 폭력을 경험했다. 또 아동 둘 중 하나는 학교에서 맞은 적이 있다.

멕시코 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심각한 상황이다. 하루 평균 4명의 아동과 청소년이 살해되고 있으며, 실종자 10명 중 2명은 아동과 청소년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스쿠그는 "어린이들이 평등한 조건에서 모든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유년기부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7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 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황,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각종 보험	교통사고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이지 초이스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시간: 월~금 9am~6pm 화 1pm~6pm/토 9am~12pm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샤론
한의사,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의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